



씨앤엠 전용 무선전화기
‘IP-DECT폰’ 업계 최초 출시

뛰어난 통화 품질

긴 연속통화시간, 낮은 배터리 발열

수도권 최대 케이블TV방송사인 씨앤엠이 업계 최초로 무선 인터넷전화기 IP-DECT폰을 출시했다. IP-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폰은 디지털 방식의 무선전화기로 기존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음질과 보안 문제를 개선했다. 1.7GHz의 음성 전용 주파수 대역인 클린 밴드(Clean Band)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와이파이 방식에 비해 넓은 통화 가능 범위, 긴 연속통화시간, 낮은 배터리 발열 등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IP-DECT폰은 그립(Grip)감을 향상한 배(Bar)타입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연속통화 10시간, 통화대기 100시간, 자동응답설정, 부재중 전화 문자발송 기능, 2인치 대형 LCD와 64화음 벨소리, 그룹별 벨 소리 지정, 모닝콜, TV 리모컨 기능, 내선통화, 3자 통화 등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HNA